

인쇄 | 닫기

[미술판] 찢고 붙이니 괴물이 된 神

김기라 '공동선-모든 산에 오르라' 전
29일까지 서울 연지동 두산갤러리 서울

입력시간 :2012.03.21 15:48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3월 21일자 32면에 게재됐습니다.



▲ '오리엔탈 스펙터-몬스터'(사진=두산 갤러리)

[이데일리 장서운 기자] 설치작가 김기라가 서울 연지동 두산갤러리 서울에서 29일까지 개인전 '공동선- 모든 산에 오르라!' 전을 개최한다.

김기라는 사진·회화·영상과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사회와 개인의 모습이 반영된 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지난 8년간 세계 10여 개국을 다니며 모은 500권 이상의 문화·역사·인류사 등의 서적에서 발췌한 신화와 성상의 이미지들로 만든 사진 콜라주·드로잉·설치작품 60여점을 소개한다.

이 중 희극적 요소와 서사적 구조가 보다 집약적인 작품세계인 ‘스펙터’ 연작은 역사적·사회적으로 의미가 축적돼온 신화와 성상 이미지들을 변형한 작품들이다. 인간이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낸 신의 형상을 해체하고 재구성했더니 괴물의 모습을 드러내더라는 작품의도가 담겼다. 02-708-5015.

장서윤 기자 ciel@

인쇄 | 닫기
